분수

정준규 감정평가사((주)하나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)

아무리
아무리
숫구쳐 올라도
나의 낙화(落花)는
그대

그대로 인해
한 생의 무지개를 꿈꾸었으나
나의 사멸(死滅)은
그대

장엄히
그대 안에
오롯이 물들다